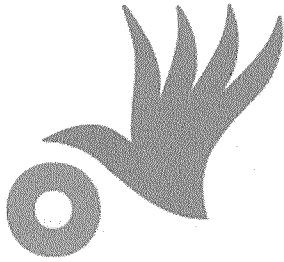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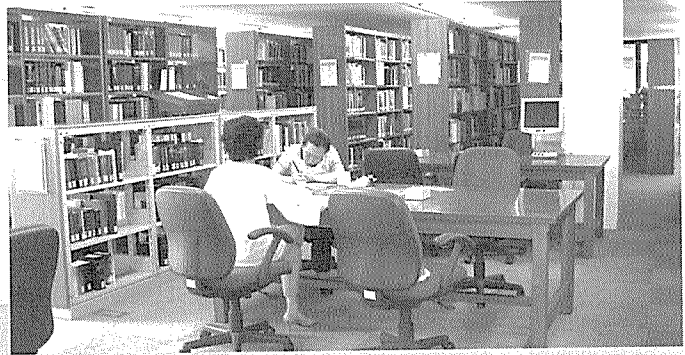


태극민 인권 전문 도서관으로의 향한 도약을 준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을 다녀와서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왼쪽의 이음(이)은 인권의 약자로 인권을 뜻하며, 오른쪽은 새 또는 손을 표현한 것으로 새는 자유를, 손은 인권 보호를 의미)



(위원회 인권자료실 전경)

도서관, 이용자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밀접해져

2001년 11월 출범한 '인권 전담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이하 '위원회')는 '테러방지법안 제정 및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 'NEIS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경고' '공무원 및 공기업의 고용차별 직권조사' '크레파스 색상 명칭의 피부색 차별에 대한 권고' 등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주요 인권 현안을 다루면서 지난 4년 간 '인권'이라는 보편적이면서도 한편으론 우리 국민에게 낯설어 보였던 가치를 우리사회의 일상으로 스며들게 하였다.

한편 우리 도서관계도 도서관 운영에 있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일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관심 있게 바라볼 계기가 있었다. 일부 공공이나 대학도서관에서 일반자료실 이용시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하고 CCTV를 설치하면서 이용자들에 의해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의 조사 심의 과정에서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한 21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관한 직권조사가 이루어져 그 결과가 공표되고 획일적인 주민번호 요구 관행 개선 권고를 접하게 된 후, 도서관에서도 운영과 정보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인권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여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인권자료실 - 다양한 인권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인권 전문정보센터 구축

위원회는 출범 시 모든 국민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권정보자료의 효율적인 서비스체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위원장 직속 소속기관으로 인권자료실을 설치하였다.

2002년 4월 1일 사무처 출범을 시작으로 업무를 시작한 위원회 인권자료실(실장 심민석, 이하 '자료실')은 서울시청 바로 오른쪽 길 건너 있는 금세기빌딩 8층에 자리잡고 있다.

서울의 중심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자료실은 총 85.8평 면적에 인권 관련 자료 단행본 1만 2천여종, 연속간행물 2백여종, 전자정보원 5종(로앤비, Westlaw, ASP, DBpia, KISS)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이용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인권 관련 영상자료 800여종에는 다른 곳에서 보기 드문 독립다큐멘터리 작품들이 많이 있으며, 20여석 규모의 영상자료실 및 개인용 영상자료 부스를 이용하여 자료실을 방문한 사람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위원회 자료실을 넘어 대국민 인권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서비스 강화에 도전

자료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는 총 5명으로 개실 초기에는 인권 전문 기본 장서 수집과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작업에 주력하였으나, 위원회 2기 출범을 맞아 내부 자료실의 기능을 넘어 일반인들에게도 열린 인권 전문도서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직원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소장자료 대출 서비스를 외부이용자에게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다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권 관련 용어를 다양한 이용 계층이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권 관련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색시스템에 적용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물론 현재도 원거리 이용자에게는 복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발간자료 원문을 제공하고,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자료실 소장 영상자료 대출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인권 관련 장서, 인력 및 공간을 더욱 확충하여 모든 국민이 인권 전문 정보센터로서 인권자료실을 기억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토대로 국민의 인권 의식 신장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을 기대한다.

도서관은 인권의 장, 사서는 인권의 지킴이

마침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실종사건 중간 조사결과 발표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던 시점에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하며 새삼 격세지감을 느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반인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의 행보에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자료실의 역할과 책임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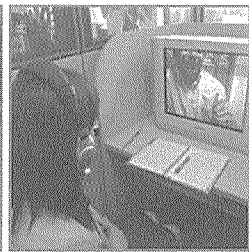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이 이용자가 진정 원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인권의 장' 도서관, 인권 지킴이 사서 가 될 것을 다짐해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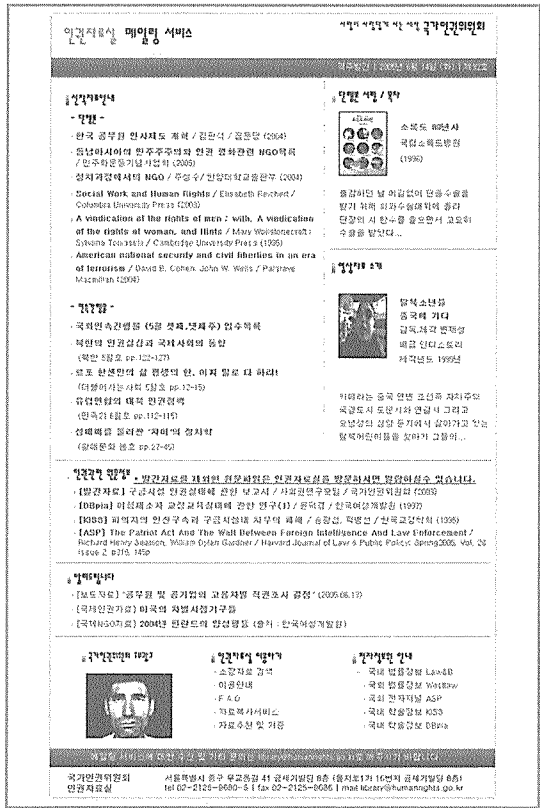
(자료실 홈페이지, 소장자료 검색, 위원회 발간자료 원문 등 다양한 인권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영상자료실>



<영상자료 열람부스>



(메일링서비스, 격주 발간. library@humanrights.go.kr로 문의하면 누구든지 받아 볼 수 있다.)

[글 : 박경아, 사진 : 최인경]